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7, No. 1, 2015. 2, pp. 31-53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 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

: 현재자녀수에 따른 비교*

배 광 일
(전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의 2011년(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기혼여성의 출산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는 첫째, '자녀교육비용'과 '육체적인 힘듦'이 추가자녀 출산포기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자녀수에 따라 출산포기의 사유가 약간 차이가 있었다. 즉, 현재자녀수 1명인 여성은 '직장과 육아의 병행 힘듦'이 보다 중요한 출산포기의 사유로 나타나고, 현재자녀수 2명인 여성은 '자녀양육비용'이 보다 중요한 출산포기의 사유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과 '도구적 자녀가치'가 출산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넷째, 출산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재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 양육 환경인 '여가 및 문화시설 환경'은 현재자녀수 1명인 여성의 출산포기에 영향을 미치고, 모의 심리적 요인인 '부부갈등'은 현재자녀수 2명인 여성의 출산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모의 심리적 요인, 지역사회 양육 환경, 출산포기, 현재자녀수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09년(1.15명) 이후 2012년(1.30명)까지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면서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0명)을 탈출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2-2012S1A5B5A07037601]

2013년 합계출산율이 다시 1.19명으로 떨어지고, 2001년 이후 13년째 1.3명 이하의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초저출산국을 벗어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사회, 경제 등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즉,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부담 증가, 노동인구의 부족, 노동력의 고령화, 세입기반의 감소, 사회보장지출 부담 증가, 세대 간 갈등 유발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미혜·정진경, 2003; 손홍숙, 2005; 김승권, 2006). 이는 통계청(2011)의 장래인구추계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가 시작되고, 206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0명이 부양인구 10명(노인 8명, 어린이 2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1939년 '가족법전'을 제정한 프랑스나 1945년 '아동수당법'을 제정한 영국 등은 비교적 빠르게 정책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1994년 '엔젤플랜'을 추진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3년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2006, 새로마지 2010, 새로마지 2015,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출산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비록 출산문제가 단기간에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적정수준의 출산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충원은 한 사회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문제로서, 이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술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전광희, 2002; 박숙자, 2003),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선진국의 정책 전개과정(전광희, 2005; 김명중, 2006), 보육정책, 조세정책 등 세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남기동, 2005; 허강무, 2005), 희망자녀수의 증가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공선영, 2006; 김혜정, 2010; 노승희, 2010)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출산의도가 상당히 정확하게 출산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되면서(Ajzen, 1991), 출산의도를 주제로 하는 많은 연구들(김미영, 2006; 이정원, 2007; 배광일·김경신, 2011)이 현재 발표되었고, 실제 출산행동을 분석한 연구결과들도 최근 보고되고 있다. 즉, 출산지원정책의 수혜경험이 출산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유계숙, 2009; 배광일, 2011)나 주관적 생활수준, 가족가치관, 출산정책의 수혜경험이 희망자녀수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배광일·김경신, 2012) 등 거시적 접근을 통해 출산행동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현재 많은 연구결과물을 축적하였지만, 아직 출산율의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보다 다양한 접근 방법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희망자녀수와 실제 출산자녀수간의 격차가 있음을 조사하여 이들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제시한 이철선(2010)의 연구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희망자녀수와 실제 자녀수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의도가 출산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출산의도가 출산행동으로 연결될 때 방해가 되는 요인, 즉 출산의도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출산포기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상황보다는 불만이 있는 상황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때문에(TARP, 1986) 출산의도를 접어야만 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출산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출산의도나 출산행동에 대해 각각 접근하거나, 출산의도와 출산행동을 함께 다루고 있지만 출산의도와 출산행동을 연결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각각 분석하는데(배광일, 2011) 그치고 있다. 따라서 출산의도가 출산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산포기에 대해 보다 주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를 재산적 가치로 여기고 유지되어오던 전통사회의 다산 현상은 현대사회의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효용 감소와 비용 증가를 유발하고 소자녀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민주노동연구소, 2006). 소자녀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 즉 인구대체율인 2.1명에 못 미치는 출산율이 많은 국가와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서구의 국가들이나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둘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나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천혜정, 2005; 정혜옥, 2006; 이정원, 2007; 마미정, 2008; Hochschild, 1989). 결국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2.1명인 인구대체율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자녀의 출산보다는 둘째 자녀의 출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결혼한 부부라면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사회문화적 압력이 존재하므로(조복희・현온강, 1994), 자녀를 출산한 집단과 출산하지 않은 집단의 비교보다는 한 자녀로 출산을 종결하는 집단과 추가자녀를 출산하는 집단의 차이를 비교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체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거나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는 접근보다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출산이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생활사건이라는 점, 개인의 행동양식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접근방법이 꼭 필요할 것이며, 이는 생태학적 접근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개인이나 가정이 둘러싸여 있는 공동체를 외체계라고 하는데(Belsky, 1980), 이 외체계는 개인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준다(이영 역, 1992). 많은 여성들이 출산이라는 시점에서 양육부담에 부딪혀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고(김영옥, 2002),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지원에 중점을 둔 국가들에서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Engelhardt and Prskawetz, 2004), 지역사회의 보육환경이 자녀의 출산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 보육환경 변인이 출산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외체계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 지역사회의 양육 환경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출산의도와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김미영, 2006; 마미정, 2008)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접근할 수 있는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결혼만족도(김미영, 2006)나 부부갈등, 그리고 저출산의 주

요 원인으로 주목받으면서 둘째자녀 출산기피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양육스트레스(마미정, 2008)와 부모됨의 태도인 자녀가치를 모의 심리적 요인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의 보육 및 교육 환경, 문화 및 여가 환경, 치안 및 안전사고 환경 등을 지역사회 양육 환경으로 규정한 후,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현재자녀수에 따라 출산의도나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각각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배광일, 2011), 현재자녀수에 따른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모의 심리적 요인과 지역사회 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현재자녀수에 따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한 출산지원의 정책적 대안 모색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자녀수에 따른 출산포기, 모의 심리적 요인, 지역사회 양육 환경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현재자녀수에 따라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 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선행연구 고찰

출산은 사회 존속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사회구성원의 충원과 증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1960년대 피임혁명(contraceptive revolution) 이후 재생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사망률의 저하나 생존율의 상승, 그리고 직업 전문화에 따른 자녀교육 비용의 증가 등은 추가자녀 출산을 제한토록 만든다(Leibenstein, 1974). 그리고 추가자녀 출산의 제한은 저출산을 유발하고 인구감소와 더불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미혜·정진경, 2003; 손홍숙, 2005; 김승권, 2006). 이처럼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출산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배경이나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 출산관련 이론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들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출산력의 차이를 살펴보는 차별출산력 접근, 출산이 부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입장에서 출산과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제학적 접근, 그리고 인간행동과 환경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방법인 생태학적 접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출산력 접근은 거주지, 종교,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출산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거주지의 생태학적 환경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출산력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며(김두섭, 2007), 도시보다는 농촌의 출산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피임방법에 관한 지식, 자녀에 대한 가치나 비용에 관한 지식 등을 많이 알기 때문에 가족규모를 줄이려는 동기가 더 높고, 어느 정도 이상의 여성교육은 결혼연령의 연장 또는 출산의 연기를 유발하므로(이희연, 2003)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수준이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최경수, 2003; 강경숙 외, 2005). 하지만 도시와 농촌, 종교, 교육정도에 따라 나타나던 출산력 차이는 현재 거의 사라지거나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희연, 2003; Rindfuss and Sweet, 1977).

경제학적 접근은 출산행동이 부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므로, 자녀로부터 얻어지는 효용과 비효용의 균형을 맞춘다고 본다. 즉, 한 가정의 소득 상승은 간접적 효용(자녀가 만들어내는 소득이나 노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효용)과 잠재적 보장원천의 효용(자녀가 노후의 생활보장을 맡아줄 것이라는 기대)을 감소시켜 자녀의 한계효용을 낮추고, 교육비, 양육비, 기회비용 등의 한계비효용을 증가시켜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다고 본다(Leibenstein, 1974). 이와 같은 경제학적 접근은 인간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녀출산이 반드시 합리적 판단에 의한다거나 몇 가지 변수에 의해 지배된다는 생각, 그리고 경제적인 고려에 주로 의존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권태환・김두섭, 2002).

생태학적 접근은 출산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생활사건이라는 점과 가족생활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생태계라는 점(Kantor and Lehr, 1975; Paolucci et al., 1977; 김정란, 2002에서 재인용)에 기인한 통합적 접근방법으로서 최근의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김미영, 2006; 배광일・김경신, 2011). 가임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미영(2006)은 개인유기체 변인인 연령이 적거나 미취업일수록, 그리고 미시체계 변인인 현재자녀수가 적거나 배우자의 가사참여도가 높거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있고, 소득이 많거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아내연령이 가임기에 해당하는 기혼남녀를 조사한 배광일과 김경신(2011)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는데, 개인유기체 변인인 아내연령이 적거나, 미시체계 변인인 자녀수가 적거나, 외체계 변인인 믿고 맡길만한 보육장소가 있을 때, 그리고 거시체계 변인인 가족가치관(사회통념)이 전통적이거나, 출산정책이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지할수록 출산의도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시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와 같은 생태체계 변인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생활환경에 따라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출산행위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어떤 한 가지 요인 즉, 경제적 요인이나 심리적요인, 사회적 요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을 함께 병행하여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출산관련 선행연구

최근 출산관련 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출산의도가 출산행동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보면서(Ajzen, 1991) 출산의도를 주제로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났다(이정원, 2007; 마미정, 2008; 노승희, 2010; 배광일・김경신, 2011). 이들의 연구에서는 자녀가치관이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

속출산의도를 결정하는 직접적 요인이고, 경제적 조건이나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서비스 요인은 자녀가치관의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요인인 것으로 보고된다(이정원, 2007). 그리고 맞벌이부부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을 탐색한 마미정(2008)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자녀가치관 요인이 가장 중요한 출산의도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치관이 출산의도의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출산기피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녀양육지원 요인을 보고하고 있다. 다음 배광일과 김경신(2011)의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가족가치관뿐만 아니라 보육장소 유무나 정책의 영향에 대한 인지정도가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내연령, 자녀수, 보육비 부담감은 출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책지지도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노승희, 2010)에서는 임산부 산전 진찰비용 지원, 국공립·직장보육시설 확충,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운영,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확대, 출산 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에 대한 정책지지도가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정책지지도나 자녀수는 출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출산의도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는 가운데, 출산행동을 직접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나타난다(김미영, 2006; 배광일, 2011). 소득과 결혼만족도가 출산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김미영, 2006), 배광일(2011)은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 즉, 자녀수 0~1명의 경우는 아내연령, 원가족 형제수, 출산정책 수혜경험이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기혼자는 아내연령, 원가족 형제수, 출산정책 수혜경험 이외에도 믿고 맡길만한 보육장소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내연령과 원가족 형제수가 출산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육장소 유무와 출산정책 수혜경험은 출산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희망자녀수를 출산의도로 보고 희망자녀수의 증가를 통해 출산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공선영, 2006; 김혜정, 2010)나 희망자녀수와 합계출산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희망자녀수를 출산토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공선희, 2008; 이철선, 2010; 배광일·김경신, 2012) 등 희망자녀수와 저출산 문제를 함께 분석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희망자녀수 관련 연구에서는 가구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가름할 수 있는 종사상 지위의 안정성이 희망자녀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고 있는 미래소득의 불안정성 개선을 위해 시스템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한다(공선영, 2006). 그리고 일과 가정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희망자녀수 출산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공선희, 2008).

이처럼 현재까지의 출산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출산의도, 출산행동, 희망자녀수 등에 대해 각각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출산의도와 출산행동을 함께 다루는 연구나(배광일, 2011) 출산의도와 출산기피를 함께 분석한 연구가(마미정, 2008) 있지만, 출산의도와 출산행동을 연결하지 못하고 각각을 분석하거나 출산의도와 그 반대개념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행동이 출산의도를 가진 이후에 나타나는 행위이고, 출산의도가 모두 출산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출산의도가

출산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부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출산의도가 출산행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산의도의 포기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 양육환경에 따른 출산포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방향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의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는 출산이라는 주제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법의 접근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출산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출산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영향 요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들이 결국에는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출산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가정 내의 생활사건이고, 개인의 행동양식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 지역사회 양육환경 등 여러 요인들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출산의도와 출산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김미영, 2006), 부부관계의 긍정적인 요인인 결혼만족도뿐만 아니라 부정적 요인인 부부갈등 요인도 함께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둘째자녀 출산기피의 중요한 요인으로서(마미정, 2008),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출산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박길진, 2007), 이 또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자녀가치는 자녀가 부모를 만족하게 해주는 욕구로서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려는 동기의 반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권용은・김의철, 2004), 자녀가치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은 자녀수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orster, 2000). 이와 같은 자녀가치는 이삼식(2006)이 도구적 자녀가치(노후 경제적 의존, 가문계승)와 정서적 자녀가치(부부관계 공고화, 노후 정서적 의존)로 자녀가치를 구분하였는데,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높고(정혜은・진미정, 2008), 부의 도구적 자녀가치나 모의 정서적 자녀가치가 높은 집단이 더 후속출산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미라 외, 2013). 이처럼 자녀가치가 출산의도나 후속출산행동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보고되는 바, 출산의도와 출산행동을 연결하는 출산포기 변인과도 상관이 있을 것이라 유추되며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양육 환경의 경우는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환경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출산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널리 인정되므로(김두섭, 2007), 지역사회 양육 환경이 출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환경 중에서 사회적 지지는 임신기간, 초기 아동발달기, 위기적 상황 등 생애 사건과 전환 시기에 매우 필요한 것으로(Cobb, 1979),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타인들로부터 각종 자원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박지원, 1985).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은 정신적 건강성이 높고, 환경의 통제력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며(Kaiser and Hancock, 2003), 사회적 지지가 양육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엄미

선·전동일, 2006; 배경희, 2007). 하지만 사회적 지지와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지역사회의 양육 환경 요인 중에서는 믿고 맡길만한 보육장소의 유무가 출산의도와 출산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배광일, 2011),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여가, 안전 등 다양한 양육 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의 심리적 요인과 지역사회 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며, 현재자녀수에 따라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 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자료 중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1년(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자료는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데, 2008년(1차년도) 2,078사례, 2009년(2차년도) 1,904사례, 2010년(3차년도) 1,802사례, 2011년(4차년도) 1,754사례의 표본을 유지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절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자녀수 1~2명인 모의 출산포기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므로 대상자 1,754명 중 현재 자녀수가 1~2명인 1,187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모의 평균연령은 현재자녀수 1명 33.0세, 현재자녀수 2명 33.6세로 현재자녀수 2명의 연령이 0.6세 많았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현재자녀수 1명(243명, 58.0%)과 현재자녀수 2명(476명, 49.0%) 모두 30~34세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35~39세 구간(현재자녀수 1명 22.7%, 현재자녀수 2명 35.5%)이 두 번째로 많았다. 그리고 29세 이하(현재자녀수 1명 13.6%, 현재자녀수 2명 11.3%), 40세 이상(현재자녀수 1명 5.7%, 현재자녀수 2명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자녀수 1명과 현재자녀수 2명 모두 연령 구간의 분포 순위가 같았다. 최종학력 역시 현재자녀수 1명과 현재자녀수 2명의 학력별 분포 순위가 같았다. 즉, 대졸(현재자녀수 1명 38.9%, 현재자녀수 2명 39.2%)이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현재자녀수 1명 28.9%, 현재자녀수 2명 29.3%), 전문대졸(현재자녀수 1명 27.9%, 현재자녀수 2명 26.7%), 대학원졸 이상(현재자녀수 1명 4.3%, 현재자녀수 2명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현재자녀수 1명의 경우 대도시(42.0%), 중소도시(37.5%), 읍면지역(20.5%)의 순으로 나타나고, 현재자녀수 2명의 경우는 중소도시(39.5%), 대도시(38.9%), 읍면지역(2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은 현재자녀수 1명(391.4만 원)이 현재자녀수 2명(393.1만 원)보다 약 2만 원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 월평균가구소득 384.2만원과 비교적 유사하였다. 소득 구간별로는 200만 원 초

과~300만 원 이하 구간(현재자녀수 1명 33.0%, 현재자녀수 2명 31.1%)이 가장 많았고, 300만 원 초과~400만 원 이하 구간(현재자녀수 1명 22.2%, 현재자녀수 2명 26.2%)이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은 현재자녀수 1명의 경우 500만 원 초과(17.2%), 4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15.1%), 200만 원 이하(12.4%)의 순으로 나타나고, 현재자녀수 2명의 경우는 4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15.8%), 500만 원 초과(15.5%), 200만 원 이하(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현재자녀수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187)

(명, %)

구분		현재자녀수 1명	현재자녀수 2명
전체		419(100)	768(100)
연령	29세 이하	57(13.6)	87(11.3)
	30 ~ 34세	243(58.0)	476(49.0)
	35 ~ 39세	95(22.7)	273(35.5)
	40세 이상	24(5.7)	32(4.2)
	평균	33.0세	33.6세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1(28.9)	225(29.3)
	전문대졸(3년제 이하)	117(27.9)	205(26.7)
	대졸(4년제)	163(38.9)	301(39.2)
	대학원졸 이상	18(4.3)	37(4.8)
거주지	대도시	176(42.0)	299(38.9)
	중소도시	157(37.5)	303(39.5)
	읍면지역	86(20.5)	166(21.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52(12.4)	88(11.5)
	20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	138(33.0)	239(31.1)
	300만 원 초과 ~ 400만 원 이하	93(22.2)	201(26.2)
	4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63(15.1)	121(15.8)
	500만 원 초과	72(17.2)	119(15.5)
	평균	391.4만원	393.1만원

※ 무응답: 월평균가구소득(1)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의 2011년(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변수 구성은 우선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 월평균 가구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그리고 모의 심리적 요인(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정서적 자녀가치, 도구적 자녀가치)과 지역사회 양육 환경(사회적 지지, 보육 및 교육 환경, 문화 및 여가 환경, 치안 및 안전사고 환경)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출산포기를 종속변수로 구성한다.

독립 변수인 모의 심리적 요인은 부부 간의 관계 요인인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그리고 모와 자녀의 관계 요인인 양육스트레스, 자녀가치(정서적, 도구적)를 측정하였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Chung(2004)이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RKMSS(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이용하였다. RKMSS는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매우 만족(1점)'부터 '매우 불만족(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RKMSS를 사용한 정현숙(2001)의 연구에서 Cronbach α=.94였으며, 한국아동패널의 2007년 예비조사에서는 Cronbach α=.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91로 나타났다.

부부갈등 척도는 부부의 디스트레스와 이혼의 수준을 가장 잘 예측하는 8개 문항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로 답하도록 한 Markman 외(2001)의 부부갈등척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항상 그렇다(6점)'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보완한 정현숙(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한 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정현숙(2004)의 연구에서 Cronbach α=.96으로 나타났고, 한국아동패널의 2007년 예비조사에서는 Cronbach α=.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92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척도' 32개 문항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에 해당하는 12개 문항이다. 이 중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1개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1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연구에서 Cronbach α=.88로 나타났으며, 한국아동패널의 2007년 예비조사에서는 Cronbach α=.82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87로 나타났다.

자녀가치 척도는 이삼식 외(2005)가 4점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한국아동패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총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부부관계의 공고화나 노후의 정서적 의존과 관련한 정서적 가치(4문항), 그리고 노후의 경제적 의존이나 가문계승과 관련한 도구적 가치(4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한국아동패널의 2007년 예비조사에서 Cronbach α=.8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녀가치 Cronbach α=.82, 도구적 자녀가치 Cronbach α=.73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양육 환경은 사회적 지지, 보육 및 교육 환경, 문화 및 여가 환경, 치안 및 안전사고 환경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나 기관들로부터 받는 도움에 대해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지 척도와 조병은 외(1998)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기초로 한국아동패널에서 자체 제작하였다. 총 12개 문항이며 개념적으로는 도구적(3문항), 정서적(2문항), 사교적(4문항), 정보적(3문항) 지지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한국아동패널의 2007년 예비조사에서 Cronbach α=.89, 본 연구에서 Cronbach α=.93으로 나타났다.

보육 및 교육 환경은 '어린이집 충분성', '유치원 충분성', '기타 사교육기관 충분성' 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 및 여가 환경은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과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2문

항, 치안 및 안전사고 환경은 '치안측면 안전성'과 '안전사고 측면 안전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지역사회 양육 환경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절한 환경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출산포기는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측정하였다. 먼저 출산포기는 출산을 계획하였으나 중간에 그만둔 것을 의미하므로, '자신이 계획한 자녀수를 모두 출산하였기 때문'에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출산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앞으로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에 대해 '낳겠음', '낳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낳지 않겠음'의 응답을 출산포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낳겠음'이나 '잘 모르겠음'은 아직 출산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파악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χ^2 검정, t검정을 실시한다. 그리고 각 변인들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한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1) 출산포기 및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1) 출산포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포기의 경향을 현재자녀수에 따라 비교해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현재자녀수 1명의 경우는 전체 대상자 419명 중 36.5%인 153명이 출산을 포기하였으며, 현재자녀수 2명은 전체 768명 중 78.6%인 604명이 출산을 포기하였다. 즉, 현재자녀수 2명인 집단이 현재자녀수 1명인 집단보다 2배 이상 높은 출산포기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자녀수를 구분한 후, 출산포기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에서는 현재자녀수 1명 집단과 현재자녀수 2명 집단 모두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현재자녀수 1명: χ^2=17.33, p〈.01, 현재자녀수 2명: χ^2=47.22, p〈.001). 현재자녀수 1명은 29세 이하 집단의 40.4%, 35~39세 집단의 48.4%, 40세 이상 집단의 58.3%가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0~34세 집단은 40세 이상 집단(5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8.8%만이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30~34세 연령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출산포기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출생 통계에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출산을 가장 많이 한 연령 집단이 30~34세 집단이라는 점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출산포기의 연령별 순위가 통계청의 연령대별 출산 순위, 즉 2009년 이후 연

령대별 출산 순위가 30~34세, 29세 이하, 35~39세, 40세 이상의 순서인 점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현재자녀수 2명의 경우는 29세 이하의 59.8%, 30~34세의 73.9%, 35~39세의 89.0%, 40세 이상의 96.9% 등 연령이 높아지면 출산포기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9세 이하 집단과 30~34세 집단이 35~39세 집단이나 40세 이상 집단에 비해 비교적 출산포기율이 낮았다.

연령 이외의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포기를 살펴보았을 때, 현재자녀수 1명의 경우는 고졸 이하(44.6%), 읍면지역(43.0%),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초과 집단(41.7%)의 출산포기가 가장 많았고, 현재자녀수 2명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80.2%), 대도시(79.6%),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집단(83.5%)의 출산포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포기

(명, %)

변수		현재자녀수 1명				현재자녀수 2명			
		출산포기 안 함	출산포기 함	합계	χ^2값	출산포기 안 함	출산포기 함	합계	χ^2값
전체		266(63.5)	153(36.5)	419(100.0)	-	164(21.4)	604(78.6)	768(100.0)	-
연령	29세 이하	34(59.6)	23(40.4)	57(100.0)	17.33**	35(40.2)	52(59.8)	87(100.0)	47.22***
	30~34세	173(71.2)	70(28.8)	243(100.0)		98(26.1)	278(73.9)	376(100.0)	
	35~39세	49(51.6)	46(48.4)	95(100.0)		30(11.0)	243(89.0)	273(100.0)	
	40세 이상	10(41.7)	14(58.3)	24(100.0)		1(3.1)	31(96.9)	32(10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67(55.4)	54(44.6)	121(100.0)	5.33	45(20.0)	180(80.0)	225(100.0)	2.68
	2~3년제 대학 졸업	81(69.2)	36(30.8)	117(100.0)		52(25.4)	153(74.6)	205(100.0)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118(65.2)	63(34.8)	181(100.0)		67(19.8)	271(80.2)	338(100.0)	
거주지	대도시	123(69.9)	53(30.1)	176(100.0)	5.57	61(20.4)	238(79.6)	299(100.0)	1.41
	중소도시	94(59.9)	63(40.1)	157(100.0)		62(20.5)	241(79.5)	303(100.0)	
	읍면지역	49(57.0)	37(43.0)	86(100.0)		41(24.7)	125(75.3)	166(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33(63.5)	19(36.5)	52(100.0)	2.31	23(26.1)	65(73.9)	88(100.0)	3.80
	200만 원 초과~300만 원 이하	85(61.6)	53(38.4)	138(100.0)		52(21.8)	187(78.2)	239(100.0)	
	300만 원 초과~400만 원 이하	61(65.6)	32(34.4)	93(100.0)		40(19.9)	161(80.1)	201(100.0)	
	4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44(69.8)	19(30.2)	63(100.0)		20(16.5)	101(83.5)	121(100.0)	
	500만 원 초과	42(58.3)	30(41.7)	72(100.0)		29(24.4)	90(75.6)	119(100.0)	

**p<.01, ***p<.001

※ 무응답: 월평균가구소득(1)

다음은 추가자녀 출산포기의 사유를 현재자녀수에 따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표 3〉). 우선 '자녀교육비용(현재자녀수 1명: 26.1%, 현재자녀수 2명: 39.2%)'과 '육체적으로 힘듦(현재자녀수 1명: 19.6%, 현재자녀수 2명: 22.0%)'은 현재자녀수 1명과 현재자녀수 2명 모두에게서 출산포기의 사유 1순위와 2순위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깝거나(현재자녀수 1명: 45.7%), 절반을 넘는(현재자녀수 2명: 61.2%) 수가 '자녀교육비용'이나 '육체적 힘듦'을 이유로 하여 출산을 포기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녀교육비에 대한 지원이나 자녀 양육 노동의 지원을 확대 시행하지 않고서는 출산율의 상승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순위는 현재자녀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현재자녀수 1명은 '직장과 육아의 병행(13.7%)', '많은 나이(13.1%)', '자녀양육비용(11.8%)'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현재자녀수 2명은 '자녀양육비용(13.6%)', '직장과 육아의 병행(10.1%)', '많은 나이(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자녀수가 1명인 경우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직장생활과 육아의 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자녀수 2명의 경우는 자녀수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양육비의 증가)이 추가자녀의 출산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같이 현재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출산포기의 경향은 현재자녀수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으로 정책적 지원이나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3〉 현재자녀수에 따른 출산포기 사유

순위	현재자녀수 1명 (N = 153)		현재자녀수 2명 (N = 604)	
	출산포기 사유	빈도(%)	출산포기 사유	빈도(%)
1	자녀 교육비용 때문	40(26.1)	자녀 교육비용 때문	237(39.2)
2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30(19.6)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133(22.0)
3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 힘들어서	21(13.7)	자녀 양육비용 때문	82(13.6)
4	나이가 많아서	20(13.1)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 힘들어서	61(10.1)
5	자녀 양육비용 때문	18(11.8)	나이가 많아서	38(6.3)
6	개인 시간(여가) 및 자아성취를 위하여	12(7.8)	개인 시간(여가) 및 자아성취를 위하여	29(4.8)
7	믿을만한 양육자나 육아기관이 없어서	8(5.2)	믿을만한 양육자나 육아기관이 없어서	6(1.0)
	기타(무응답)	4(2.6)	기타(무응답)	18(3.0)
	전체	153(100.0)		604(100.0)

※ 출산포기 사유에 대한 응답은 전체 대상자 1,187명 중 출산을 포기한 대상자 757명만 응답함

(2)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 양육 환경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 양육 환경의 경향, 그리고 현재자녀수에 따른 차이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점수는 현재자녀수 1명(평균 3.72점)과 현재자녀수 2명(평균 3.75점) 모두 중간

점수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부부갈등 점수는 현재자녀수 1명(평균 2.14점)과 현재자녀수 2명(평균 2.10점) 모두 중간점수인 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현재자녀수 1명인 여성이나 현재자녀수 2명인 여성 모두 결혼생활이나 부부생활에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점수도 현재자녀수 1명(평균 2.71점)과 현재자녀수 2명(평균 2.88점) 모두 중간점수인 3점보다 낮아 비교적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는 현재자녀수 1명과 2명 모두 정서적 자녀가치의 점수(자녀수 1명: 평균 4.28점, 자녀수 2명: 평균 4.34점)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도구적 자녀가치의 점수(자녀수 1명: 평균 2.69점, 자녀수 2명: 평균 2.87점)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즉, 기혼 유자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해 도구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의 심리적 요인 중 양육스트레스($t=-4.54$, $p<.001$)와 도구적 자녀가치($t=-3.64$, $p<.001$)는 현재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현재자녀수 1명인 집단(평균 2.71)이 현재자녀수 2명인 집단(평균 2.88)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았고, 현재자녀수 1명 집단(평균 2.69)이 현재자녀수 2명 집단(평균 2.87)보다 도구적 자녀가치 점수가 낮았다. 이는 자녀수가 많은 현재자녀수 2명 집단이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보다 도구적인 자녀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양육 환경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점수는 현재자녀수 1명(평균 3.85)과 현재자녀수 2명(평균 3.81) 모두 중간점수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로부터 보통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은 치안 및 안전사고 측면의 환경(현재자녀수 1명: 평균 3.21, 현재자녀수 2명: 평균 3.16)만이 중간점수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보육 및 교육 환경(현재자녀수 1명: 평균 2.86, 현재자녀수 2명: 평균 2.94)이나 문화 및 여가 환경(현재자녀수 1명: 평균 2.82, 현재자녀수 2명: 평균 2.81)은 중간점수인 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치안 및 안전사고 측면에서의 자녀양육 환경은 보통 이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보육 및 교육 시설의 충분성이나 여가 및 문화 시설의 편리성은 보통 이하로 느끼고 있어, 보육 및 교육 시설이나 여가 및 문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현재자녀수에 따른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 양육 환경

변인		현재자녀수 1명 (N = 419)		현재자녀수 2명 (N = 768)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의 심리적 요인	결혼만족도	3.72	.74	3.75	.73	-.67
	부부갈등	2.14	.77	2.10	.76	.75
	양육스트레스	2.71	.64	2.88	.63	-4.54***
	정서적 자녀가치	4.28	.60	4.34	.59	-1.53
	도구적 자녀가치	2.69	.75	2.87	.79	-3.64***
지역사회 양육 환경	사회적 지지	3.85	.61	3.81	.65	1.07
	보육 및 교육	2.86	.82	2.94	.86	-1.56
	문화 및 여가	2.82	.88	2.81	.90	.34
	치안 및 안전사고	3.21	.73	3.16	.75	1.13

***p<.001

2) 모의 심리적 요인, 지역사회 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 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상관분석과 분산팽창지수(VIF)를 살펴보았다. 이에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r \geq .70$)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고, 분산팽창지수(VIF) 역시 1.06~2.28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 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현재자녀수에 따라 비교하고자 하므로 현재자녀수 1명과 현재자녀수 2명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에의 투입순서는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 등 통제변수를 먼저 투입하였다. 이후 모의 심리적 요인(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정서적 자녀가치, 도구적 자녀가치)과 지역사회 양육 환경 변인(사회적지지, 보육 및 교육 환경, 문화 및 여가 환경, 치안 및 안전사고 환경)을 투입하였다(〈표 5〉). 먼저 현재자녀수 1명의 경우는 -2LL(-2 log likelihood) 값이 478.08로 나타났으며 출산포기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추정되었다($\chi^2=48.73$, $p<.001$). 그리고 출산포기에 대한 설명력(Nagelkerke R^2)은 16%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연령(Wald=14.10, $p<.001$), 심리적 요인인 도구적 자녀가치(Wald=3.91, $p<.05$), 그리고 지역사회의 양육 환경인 문화 및 여가 환경(Wald=8.28, $p<.01$)이 출산포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이 1세 증가하면 출산을 포기할 확률이 1.12배 증가하고, 도구적 자녀가치 수준이 1수준 감소할 때 출산을 포기할 확률이 1.39배(0.72의 역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 및 여가 환경의 편리성이 1수준 감소할 때 출산을 포기할 확률이 1.61배(0.62의 역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많거나 도구적 자녀가치를 지니지 않거나 지역사회의 문화 및 여가 환경이 불편할수록 더 자녀출산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수 1명인 기혼여성이 추가자녀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자녀출산 이후 자녀와 함께 여가생활이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 현재자녀수 2명의 경우는 -2LL(-2 log likelihood) 값이 715.49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산포기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추정되었으며($\chi^2=55.35$, $p<.001$), 출산포기에 대한 설명력(Nagelkerke R^2)은 11%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연령(Wald=35.74, $p<.001$), 심리적 요인인 부부갈등(Wald=3.85, $p<.05$), 도구적 자녀가치(Wald=5.45, $p<.05$)가 출산포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는 1세 증가할 때 출산을 포기할 확률이 1.21배 증가하며, 부부갈등은 그 수준이 1수준 증가할 때 출산을 포기할 확률이 1.4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구적 자녀가치 수준은 오히려 1수준 감소할 때 출산을 포기할 확률이 1.35배(0.74의 역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수가 2명인 기혼여성은 연령이 많거나 부부갈등이 심하거나 자녀가치가 도구적이지 않을수록 추가자녀의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명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과 2명의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출산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해 보았다. 우선 연령과 도구적 자녀가치 변인은 자녀수 1명인 기혼여성과 자녀수 2명인 기혼여성 모두에게 출산포기의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적거나 도구적 자녀가치를 지닐수록 추가자녀의 출산포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자녀를 둔 여성과 두 자녀를 둔 여성 모두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가 추가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신윤정(200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문화 및 여가 변인이나 부부갈등 변인의 영향력은 현재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지역사회 양육 환경인 문화 및 여가 환경은 자녀수 1명인 기혼여성의 출산포기에만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요인인 부부갈등은 자녀수 2명인 기혼여성의 출산포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수 1명의 기혼여성은 지역사회의 양육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추가자녀의 출산을 포기하지만, 자녀수 2명인 기혼여성은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부부갈등이 심할 때 추가자녀의 출산을 포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수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과 지원이 시행되어야 추가자녀의 출산포기 상황을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5〉 현재 자녀수에 따라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력

변인 \ 모형		현재 자녀수 1명				현재 자녀수 2명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통제변인	연령	.11	.03	14.10***	1.12	.19	.03	35.74***	1.21
	교육수준	-.20	.13	2.20	.82	-.17	.11	2.23	.84
	월평균 가구소득	.00	.00	.12	1.00	.00	.00	.04	1.00
	거주지(중소도시)	.40	.25	2.44	1.49	-.03	.22	.02	.97
	거주지(읍면지역)	.28	.31	.81	1.32	-.12	.25	.22	.89
심리적 요인	결혼만족도	.05	.22	.05	1.05	.19	.18	1.14	1.21
	부부갈등	.27	.22	1.45	1.30	.36	.18	3.85*	1.43
	양육스트레스	.03	.21	.01	1.03	.00	.18	.00	1.00
	정서적 자녀가치	-.41	.22	3.43	.66	-.12	.21	.31	.89
	도구적 자녀가치	-.33	.17	3.91*	.72	-.30	.13	5.45*	.74
지역사회 양육환경	사회적 지지	.04	.20	.05	1.04	.15	.16	.90	1.16
	보육 및 교육	.28	.16	3.20	1.33	-.07	.13	.32	.93
	문화 및 여가	-.48	.17	8.28**	.62	.01	.14	.00	1.01
	치안 및 안전사고	.24	.18	1.77	1.27	.12	.15	.60	1.12
-2LL		478.08				715.49			
모형적합도 χ^2		48.73***				55.35***			
Nagelkerke R^2		.16				.11			

*p<.05, **p<.01, ***p<.001
거주지(대도시 0)는 Dummy variable

5. 결론 및 제언

현재 진행 중인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의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한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 즉 인구대체율인 2.1명에 못 미치는 출산율은 많은 국가와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인구대체율 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혼남녀가 추가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출산율의 증가를 유도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추가자녀의 출산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되는 모의 심리적 요인과 지역사회 양육 환경을 현재자녀수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유자녀 기혼여성의 추가자녀 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교육 비용'이나 '육체적인 힘듦'은 현재자녀수에 상관없이 모두 출산포기의 중요한 사유 1~2위를 차지하였다. 자녀 보육비나 교육비 부담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신윤정, 2008; 배광일・김경신, 2011), 추가자녀의 출산포기에도 중요한 사유로 작용하였다. 특히, 교육비가 출산포기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나타나는데, 이는 '무상 보육' 등 보육비와 관련한 많은 지원정책에 비해 교육비와 관련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의미하는데,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사교육비용을 줄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출산포기의 중요한 사유로 '육체적인 힘듦'이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육체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책임지우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를 통해 부부가 함께 가사를 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가정방문 돌보미 서비스나 일시적 양육시설 이용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필요시 바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포기의 중요한 사유 3~5위는 현재자녀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직장과 육아의 병행 힘듦'은 현재자녀수 1명인 기혼여성에게 보다 중요한 출산포기의 사유로 나타나고, '자녀양육비용'은 현재자녀수 2명인 기혼여성의 보다 중요한 출산포기의 사유로 나타났다. 먼저 현재자녀수 1명인 여성은 자녀양육 경험이 부족하여 육아와 직장의 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이 출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효진 외(2010)의 연구나 양육・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출산의지가 향상된다는 박영애(2013)의 연구와 유사하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이라는 시점을 통과할 때 양육부담이라는 장애에 부딪혀 노동시장에서 퇴출한다는 점(김영옥, 2002)이나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지원에 중점을 둔 국가들의 기혼여성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재경 외, 2005; 전광희, 2005; Engelhardt and Prskawetz, 2004)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여성에게 지워진 가사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편과 가족구성원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가족문화의 확대를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자녀수가 2명인 여성은 자녀수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육아비용의 부담이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양육비용의 증가를 유발하는데, 자녀수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추가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지원 역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양육비에 대한 지원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의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출산에 대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자녀수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연령이나 도구적 자녀가치가 현재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한 자녀를 둔 여성과 두 자녀를 둔 여성의 추가자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윤정(200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출산을 경제적 안정 이후로 미루려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출산연령을 높이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출산율을 낮출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출산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불안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존립을 위해 꼭 필요한 구성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하며, 부모가 미래의 자녀 교육 및 보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추가자녀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분석 결과 현재자녀수에 따라 출산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 양육 환경 변인인 여가 및 문화 환경은 현재자녀수 1명인 여성의 출산포기에 영향을 미쳤고, 심리적 요인인 부부갈등 변인은 현재자녀수 2명인 여성의 출산포기에 영향을 미쳤다. 즉, 현재자녀수 1명인 기혼여성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여가 및 문화시설의 편리성과 같은 지역사회의 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위를 중요시 하는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친구처럼 지내는 현대적 부모자녀관계로 변화하면서, 자녀와 함께 여가 및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수 1명인 여성이 2번째 자녀의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가 여가 및 문화생활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지역사회의 여러 환경적인 측면을 다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출산포기의 요인이 제거된다면 1자녀 여성의 추가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여 출산율의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자녀수 2명인 기혼여성의 경우는 부부갈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출산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원만한 부부관계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이정순(2003)의 연구나 부부갈등과 부적상관이 높은 결혼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손수민, 2012), 출산행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미영(2006)의 연구 등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부 간의 갈등이 줄어서 서로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추가자녀의 출산포기가 줄어들고 출산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부부갈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자녀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부부나 기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예비부부 교육, 결혼생활 교육, 부부역할 교육, 부부의사소통 기술 향상 교육,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교육 등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부갈등의 감소 및 사전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부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있다면 이들의 갈등 해결을 위해 가족치료나 부부상담 등 심리적 치료의 지원도 함께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상담이 정신병 치료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며, 상담치료가 일반화, 보편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적용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자녀수에 따라 각기 다른 요인이 출산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자녀수에 따라 차별화한 접근이 꼭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출산포기를 주제로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출산포기의 감소가 출산행동으로 연결될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출산포기와 출산행동의 관계에 대해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후속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수에 따른 비교를 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한자녀 가정이나 무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자녀유무에 따른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의 병행이나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재검증과 같은 후속연구 등도 필요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강경숙 · 변미희 · 정은미, 2005,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저출산 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3): 127-145.

공선영, 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 119-149.

공선희, 2008, “일-가족 양립 현실과 출산 선택”, 『젠더연구』, 13: 65-86.

권용은 · 김의철, 2004, “가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211-226.

권태환 ·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김기현 ·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두섭, 2007,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파주: 집문당.

김미혜 · 정진경, 2003,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9(1): 1-21.

김명중, 2006,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한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책”, 『국제노동브리프』, 4(1): 70-79.

김미영, 2006,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기혼여성의 출산행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승권, 2006,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적정인구”, 『한국인구학』, 29(1): 241-268.
김영옥, 2002, 『여성의 동태적 노동공급: 취업연속성과 첫 노동시장 퇴출형태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정란, 2002, “아내학대에 대한 부부체계적 접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혜정, 2010, “미혼남녀별 결혼 및 자녀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기동, 2005, “저출산 원인과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 『사회행정연구』, 21: 315-337.
노승희, 2010, “기혼여성의 출산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마미정, 2008,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민주노동연구소, 2006, 『노동자의 저출산 원인 규명과 아내 친화적 노동시장정책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박길진, 2007,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양육부담과 출산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숙자, 2003, “저출산현상의 원인과 대책방향”, 『동덕여성연구』, 8: 121-145.
박영애, 2013,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배경희, 2007, “장애아동 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양육부담 및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배광일, 2011, “출산의도 및 출산행동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배광일·김경신, 2011, “생태학적 변인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123-149.
_____, 2012, “가족가치관 및 출산정책이 희망자녀수 출산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3(3): 239-266.
손수민,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손홍숙, 2005, “저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1): 43-63.
신윤정, 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103-134.
엄미선·전동일, 2006,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과 사회적지지”, 『사회복지리뷰』, 11: 75-108.
유계숙, 2009, “저출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07년 출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69-189.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이삼식·정윤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신인철·도세록·조숙경·강주희,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 역, 1992, 『인간발달 생태학』, Bronfenbrenner, U.,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서울: 교육과학사.
이재경·조영미·이은아·유정미, 2005,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한국여성학』, 21(3): 133-166.
이재림·옥선화,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이정순, 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이정원, 2007,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합리적-가치적 선택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철선, 2010,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희망자녀수와 출산자녀수간의 격차해소가 저출산의 해법!-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VIP Report』, 24: 1-22.

이희연, 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서울: 법문사.

전광희, 2002,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13: 305-323.

_____, 2005, “유럽 선진국의 인구·가족정책의 전개과정-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사회과학연구』, 16: 211-236.

정미라·홍소영·박수경, 2013, “첫 자녀를 둔 가구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유아교육연구』, 33(1): 259-277.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5-224.

_____, 2004, “결혼 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정혜옥, 2006, “한 자녀 가정의 자녀 출산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동작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혜은·진미정,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47-164.

조병은·서동인·신화용·정현숙, 1998,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 13-21.

조복희·현온강, 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주효진·곽경희·조주연, 2010,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4(4): 211-228.

천혜정, 2005,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25-33.

최경수, 2003,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http://kostat.go.kr.

_____, 2014, “2013년 11월 인구동향”, http://kostat.go.kr.

허강무, 200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세법제의 과제”, 『조세법연구』, 11(2): 141-176.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Belsky, J., 1980, “Child maltreatment: An ecological integration”, *American Psychologist*, 35: 320-335.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Cobb, S., 1979, “Social support and health through the life course”, 93-106, in *Aging from Birth to Deat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edited by Riley, M. W., Boulder: Westview Press.

Engelhardt, H., and Prskawetz, A., 2004, “On the changing correlation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over space and time”,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0: 35-62.

Forster, C., 2000, “The limits to low fertility: A biosocial approach”,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2): 209-234.

Hochschild, A., 1989, *The Second Shift: Working Parents and the Revolution at Home*, New York: Viking.

Kaiser, A. P., and Hancock, T. B., 2003, "Teaching parents new skills to support thei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Infants and Young Children*, 16: 9-21.

Kantor, D., and Lehr, W., 1975, *Inside the Family*, New York: Harper and Row.

Leibenstein, H., 1974, "An interpretation of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Promising path or blind all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2(2): 457-79.

Markman, H., Stanley, S., and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and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Paolucci, B., Hall, O. A., and Axinn, N. W., 1977, *Family Decision Making: An Ecosystem Approach*, New York: John Wiley and Sone.

Rindfuss, R., and Sweet, J., 1977, *Postwar Fertility Trends and Differentials in the United States(Studies in Popul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TARP(Technical Assistance Research Programs Institute), 1986, *Consumer Complaint Handling in America : An Update Study*. Washington, DC : Consumer Affairs Council of the U. S. Department of Commerce.

The Influence of Maternal Psychological Factors and Community Child-Care Environment on the Abandonment of Childbirth
: Comparison by the Current Number of Children

Bae, Gwangi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having an influence on married woman's childbirth abandonment based on the 2011 materials (the 4th year) of 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KICC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analysis showed a few results.

First, 'educational expenses for children' and 'physical hardship' were the factors having a major influence on the abandonment of another childbirth. Second, there was some difference in the reason for the abandonment of another childbirth according to the current number of children. That is, women with one child gave up another childbirth because of 'hardship to juggle child-care and work', while women with two children showed 'child-care costs' as a more important reason for the abandonment of childbirth. Third, 'age' and 'instrumental value of children' also had an influence on the abandonment of childbirth. Fourth, there was some difference in the factors having an influence on childbirth abandonment according to the current number of children. The research found that the community child-care environment such as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influenced the women with one child, and maternal psychological factor such as 'marital conflicts' influenced the women with two children in their abandonment of another childbirth.

Key words: Maternal psychological factors, community child-care environment, abandonment of childbirth, current number of children

〔논문 접수일 : 14. 08. 25, 심사일 : 14. 10. 03. 게재 확정일 : 15. 01. 16〕